

제 159 호

대림 제 2주일

1975. 12. 7.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칼론□



무엇을 하오리까?

김병엽 신부

견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주님은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시고, 현재로만 계시는 천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시간을 주셔서 구차한 옷을 훨훨 벗어버리고 동명상태에 들어간 나무들, 동물들이 초겨울을 맞이하였나이다. 우리 자모이신 성교회에서도 이 계절을 따라 전례의 시발점이요 근원이며, 희망과 회개의 때를 주심에 대하여 이전에 깊이 굴복하여 감사드리나이다. 파수꾼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듯, 먼 타향에 정처없이 떠난 입을 기다리듯 독생성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를 이어가며,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하듯한 마음으로 구세주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열망과 이 세상 완성 때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소소서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기나긴 학정 밑에서 바빌론의 포로생활의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의 대림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고통과 기다림의 자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 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소소서...

각 시대의 양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과거나 현재나 기다리는 목적만은 주님 같지않습니까. 대림절을 맞아 지난 한 해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점이 많사와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겠나이다. 사랑의 실천에 어떤 태도로 임하였던가. 우리가 마땅히 실천하여야 할 의무 말과 생각, 실천에서 잘못된 일 그리고 선행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행위 등... 새해에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않겠다는 결심을 굳게하여 주소서. 사랑에 쏠리며 자비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제물보다 사랑을 더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일을 하였는가?

반대로 해로운 일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주님과 멀리 하지는 않았는가, 이웃과 동료간이나 상사나 수하사이에 불화와 불행운은 없었는가? 에 대하여 생각하여 주시옵고 이제 화해의 성년도 마무리 짓는 이 마당에서 화해가 없이 용서가 없고, 사랑의 극치는 하나가 된다는 원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소소서.

그 뿐 아니라 신자로서, 자기생활에 충실하여야 할 것과 이것만큼 이웃사랑도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혼자만 받게 할 것이

(3면에 계속)

* 이 주일의 미사 *

가톨릭기도서 p 213

(1) 개회식

□**임당송** 시온 백성아, 주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당신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야 40 : 1-5, 9-11)

주의 길을 닦아라.

□**창계송**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주 하느님 말씀을 내 듣고 실사오니/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다/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당신의 영광이 우리 땅에 계시게 되리라. ◎

□**제2독서** (베드로후서 3 : 8-14 성서 p514)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 : 1-8 성서 p 75)

주의 길을 고르게 하라.

□신자들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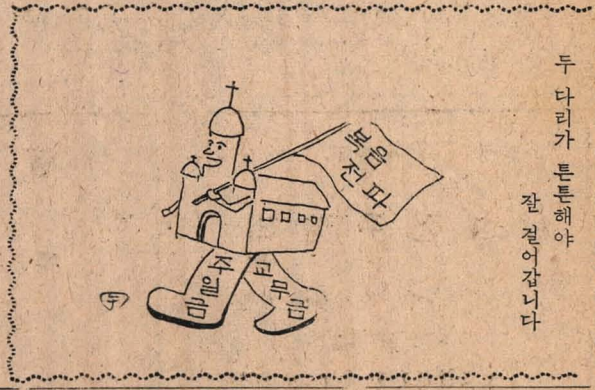
1.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 하신 천주여. 해마다 맞이하는 대림절이나, 과연 얼마만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였는지 반성하여 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그러나, 부족한 나의 준비로 인하여 내마음에 한번도 모시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 주시어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회개, 보속, 그리고 기쁨과 희망의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소소서. ◎

2. 정의의 주님이시여! 주님께선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극심한 미움을 받으셨읍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 정의로움을 본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각 곳에서 정의앞에 꺾박받고 고통 당하는 우리 형제들을 주님게서 돌보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빛과 복음이 주시어 평화로운 신 왕국 건설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은총 주소서. ◎

(3) 성찬의 전례 □불린 □성찬식

□**영성체송** 에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천주께로 부터 오는 기쁨을 보라.

순정이 산책





선(線)의 철학

김정원 신부

「예수께서 수난의 예고를 하실 때...

베두루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하고 필쩍 뛰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두루를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장애물이다.....」(마태, 16, 21-23)

우리가 선(線)하게 되면 흔히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선(線), 눈에 보이지 않는 선(線) 전자(電)를 물리적 거리를 전제로 하는 사실(寫實)적인 그것이라 한다면, 후자를 인간 관계를 포함한 정신적인, 및 내면(內緣)적인 그것이라 하겠다. 이제 이러한 선을 놓고 그 속에서 깊은 진리를 추출(抽出)해야겠다.

흔히 인간 공동체의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선, 그것을 「알파」 선(線), 「감마」 선(線)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신경(神經)적으로 「왔다 갔다」하는 선을 말한다.

이 「알파」 선, 「감마」 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러기에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것이 수도자 간의 가장 어려운 고통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부정(否定)적인 것 중의 하나다.

다음은 혈연관계에 의한 선.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선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선. 형제간의 선. 기타 등등의 선을 말한다. “네 아버지가 장만이니 너는 참으로 백이 종구나! “너는 참 줄(線)이 종구나”하는 선을 말한다.

또한 무슨 선이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선이 있다. 시(始)의 발단이 어느 편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다. 위에 말한 성경상의 예수님과 베두루의 관계가 그것이다. 예수님이 베두루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두 분 사이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이 두 분 사이는 하나의 선(線)이 이뤄진다. 위에 말한 성경의 내용이 바로 「선의 내용」인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나까 베두루가 하는 말이 “주님 안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하고 필쩍 뛰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베두루의 선의 내용이다. 이 선의 내용 속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이 들어 있다. 출세를 하고자 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베두루의 속셈에는 정말로 정진병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베두루가 지극히 인간적인 내용의 「선(線)의 내용」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만일 이때 그리스도께서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고, 십자가의 깊은 원리(原理)를 망각했었다면, 귀에 솔깃한 말에 혹시 넘어가고 말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간의 법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몇개의 선을 놓고 생각해 보았다. 이제 이러한 선에는 십자가의 깊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십자가는 분명히 선으로 이뤄진다. 종(縱)과 횡(橫)의 선으로 이뤄진다. 「종(縱)만 가지고도 안되고 「횡(橫)만 가지고도 안된다. 그 두개가 반드시 만나져야 하는 교차점이 있어야 한다. 이 교차점을 소위 「파라독스」(역설)이라 한다. 따라서 십자가는 「파라독스」에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리가 「파라독스」에 있다면 선의 원리도 「파라독스」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위의 성경 구절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이다.

「파라독스」란 말, 그것은 정말로 그리스도 인이 따라야 할 말이다. 성경의 전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파라독스」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역설(逆說)의 원리」 그자체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며, 그의 십자가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역설을 가르쳤다. 「누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마저 내 주라」고. 「겉 옷을 빼앗거든 속 옷까지 벗어 주라」고. 이것이 역설의 진리다. 그러나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다. 누가 내 귀에 알랑거리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내 정신 속에, 내 마음 속에 역설적으로 반추(反芻)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선(線)이 많다. 역사가 시작함에서 부터,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헤겔」은 역사의 과정에서 철학적으로 「변증법」을 발견했다. 그야말로 하나의 대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이 소위 교회의 두 가지 면 중에서 「인간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인 이상, 인간적인 요소가 없을 수 없겠지 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십자가의 「파라독스」, 「선(線)의 역설」을 최대 한도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히어라르키아」의 뜻을 「세르비스」의 사용 하고 있는 것이다. 「선의 역설」을 더 찾기 위한 것이다.

우리 민족, 한 민족을 흔히 선(線)= (예술적인 의미)을 사랑하는 민족이라 한다. 아낙네들의 옷, 보신 심지어 고무신 만을 보아도 선(線)을 얼마나 좋아하는 민족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寫實)적인 선에서, 그것이 정신적인 것으로 전환을 하여 역사적으로 그렇게 같듯이 많았는가도 모르겠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당파 싸움이 많았던 것인가.

흔히 우리가 음악을 시간에 대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선(線)에 대한 학문은 미술이라 할 것이다. 예술가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내야 되듯이, 정신적 선으로 아름다운 예술품도 내어 보세나.

삼성 T.V 대리점

삼성전주센타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철

박영욱(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⑤ 5899

外版事員募集

❖강가루표 양말 전복 직매점❖

주주네집

풍남동 은행나무 골목

전화 ⑥ 508

한상갑

종합전자

TV,냉장고는 종합전자로

광주직행양 2-3332

□양 지 쪽□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다

정 승 현 신부

대림절.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천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나 삼십여년을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에게서 떠나셨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아쉽고 부족을 느끼게 하는 안타까운 현존양식을 취하고 계시는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린다. 대림절은 단순히 이천년 전에 이스라엘 한 시골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의 극적인 사건을 회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귀한 사건을 “오늘 이곳에서 내가” 체험하는 때이며 오늘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때이며 나아가 세상 마칠 때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이다. 대림 첫주에 주의 재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회의 전례도 이 때문이다.

대림절에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진리·정의·사랑·평화으로 우리 발길을 돌리는 일이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권, 주님 바로 그분은 진리·정의·사랑·평화이기 때문이다.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마태 4, 17)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진리·정의·사랑·평화 등이 단순한 비현실적 동상이 아니라 하는 것이 재림의 날에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세계사에 종말을 짓지 않으면 생존경쟁, 약육강식, 정의와 힘, 교활한 자가 득을 보고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본다는 등의 말로 표현되는 세계관이 현실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진리·정의·사랑·평화의 승리가 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도덕은 공상에 지나지 않으며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고 우주는 악몽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름아닌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 자신이 세계의 장래가 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러한 하느님과 그러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제로 한 진베베의 상송을 소개한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한 어린아이가 그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며 그리스도는 친절히 대답하는 내용이다 북과 콘트라베이스의 적한 리듬을 배경으로 해서 어린아이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의 침착한 대답이 들린다. 어린아이는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더욱 더 깊어진다.

예수님은 아주 멀리서 오신다. 여행의 피로 때문인지 예수님의 얼굴은 창백하다. 예수님은 굶주리고 있다. 예수님에게는 어린아이가 많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림을 그려준다. 예수님의 집은 대단히 아름답다. 걸어서 오신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다. 베베는 어린아이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그 내용 하나 하나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들어야 할 표현들이다. 베베씨가 신부님의 글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주여 오소서 어서 빨리 오소서

*이 글은 P. 베베씨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 신학총서 3 하느님을 찾아서 pp. 119~126를 참조하였습니다.

요십이 (124) 그림요



□ 신간 안내 □

영혼의 일기 1,400원
당신은 왜 200원

성 바오로 서원 (T 3398)

(1면에서 계속)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게 크나큰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굶는이에게 밥을,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병들은 사람에게 위안과 방편을, 감옥에 갇힌이에게 찾아가 위로의 따뜻한 말과 정을 나누는 실천력을 주소서. 어느 일정한 공간, 시간안에서 동작하는 저이지만 욕망은 한이 없어서 주님께 자꾸자꾸 욕심을 굴러서 간청 하옵나니 너그러우심이 한이 없으신 주님, 부복하여 감히 드리는 이 청을 받아 주시옵시고 더 받아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탄생 준비와 함께 우리들의 사회안에서 사도직의 사명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우리의 맘을 살피게 하여 주소서. 말만 있고 행동이 따르지 못한 경우는 없는가를, 행동하고자 하나 용기가 없거나 앓았는가를 발성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끊어졌던 내 주위와 대관계를 다시 있도록 하게 하소서. 성한 양 아흔아홉의 양을 들에 두시고 병든 양을 찾아 다니신다는 인자하신 주님이 기회에 레지오마리에 브레시더움이나 신심단체들은

그동안 교회와 인연을 끊고 있는 냉담자를 찾아 회두 문체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생활전선에서 눈코뜰새없이 바쁜 직장이나 불우이웃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가정방문을 하여 잠시나마 바쁜 생활에서 자기 신앙을 되돌아 볼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소서. 사랑과 일곱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갖으신 천주성신이사여, 이 대림절은 내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벽찬 가슴을 안고 마구 달려가야 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적은 이익때문에 진리와 정의를 외면했을 때, 우리에게서 희망도 생명도 평화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대림절을 작년에도 주시고, 금년에 또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내 이웃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 보속함과 기쁨과 성탄을 맞아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남원 주임 신부)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공지사항 ※

1. 국군 장병 위문금, 위문품 위문편지 보내기 운동.
197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접수> 12월 10일까지, 전주교구청에
<보내는 곳> 교구내 군종신부님들께: 고경훈 신부, 성민호 신부, 서용복 신부, 이수현신부, 김병운신부
2.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75. 12월 8일 오전 7시 30분 가톨릭센터에서
3. 연합 가을 판공성사 일정 시간: <고백성사 전에 참회 예절도 있음>
12월 15일 오후 4시부터: 전농 16일 오후 7시: 부자 17일 오후 4시: 중앙 18일 오후 7시: 노송 19일 오후 7시: 서학동

(중앙)

전화 ㉠ 3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 3874 보좌 신부 김 동 훈
 사도 회장 이 상 용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
3. 1일 합동 가을 판공성사 집행: 12월 17일
4.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12월 11일
5. 가정 방문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구역장 반장님들께 서는 협조 바람 <4일> 진북1동 <5일> 서노 1, 2구 <6일> 경원동 <8일> 태평 1, 2, 3구 <9일> 중노, 고사동 <10일> 금암, 인우동 <11일> 서신동 <12일> 진북 2동 <13일> 학생전체

㉠금주 마당공사 회자금 ㉠정마리아 1,000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 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로

1. 판공 성사 일정: 12월 16일 오후 7시 시내 6개본당 신부님들이 오셔서 합동으로 성사주심 성사표는 8일~15일 내에 오시어 받아가지기 바람
2. 반회합
<9일> 17만 최테레사 반장래 태평 2가
<10일> 18만 홍윤자 " "
<11일> 19만 신방지가 반장래 " "
<12일> 20만 정 부녀반장래 화산동
3. 사도회 전체회의: 공식 미사후

(서학동)

전화 ㉠ 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박 장 준

1. 공소 일정
8일 오전: 북재 오후: 서당리. 9일: 내정리
12일 오전: 백암리 오후: 신흥리. 13일: 신리
16일: 마음리
2. 애령회 총회: 공식 미사후
3. 사도회 월례회: 오후 7시 미사후
4. 35사단 성경과 성가책보내기 특별헌금에 감사합니다
헌금: 5930원과 성경 1권
5. 본당 판공 일정: 19일 <판공성사표 교부일정>
<10일> 1만~7; 8만 <11일> 9만-12만
<12일> 13만-17만 <13일> 18만-기타만
㉠ 축결혼: 10일 11시 박형규군. 최정숙(마리아)
11일 11시 김성기(다두), 강정숙(막달레나)

(노송동)

전화 ㉠ 7032 주임 신부 합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휴가중이던 한 안토니오 <레가스피> 신부님께서 12월 3일 본당에 오셨습니다. 무사히 다녀오게 됨을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사도회 및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누계 4,193,627원
5. 새 성당 의자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신교리 교우: 7000원 본당 3000원 <누계> 792,330원
6. 신축성미: 4회 <누계> 236말

(덕진)

전화 ㉠ 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사도회 확대회의: 오늘 공식 미사후
2. 판공성사 일정: 평일 (9시~12시 오후 2시~5시)
<13일> 직장인, 학생 <14일> 직장인, 학생 <15일> 광복
송천 <16일> 덕진 1, 2, 3반 <17일> 덕진 4, 5, 6, 7반
<18일> 금암 1, 2, 3반 <19일> 금암 4, 5, 6반 <20일>
직장인, 학생 <21일> 직장인, 학생 <22일> 판공
<23일> 병자성사
(※판공성사 참가기간 중 평일미사 시간 오후 5시)
3. 신용조합 임원회: 오늘 (월례회 다음주)
4. 35사단 성탄위문품 편지 보내기에 적극 협조 바람

(전동)

전화 ㉠ 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한 불 섭
 사도 회장 양 윤 모

1. 판공성사 일정: 15일 오후 4시~10시 (시내 신부님 합동 고백성사) 성사표 발급일자: (10일)완산 (11일)교동 (12일)노송, 풍남 (13일)전동 외 기타 (오후 1시부터)
2. 동가정미사: 풍남, 중앙, 경원, 기타동
3. 사도회상임위원회: 저녁미사후, 성화회: 10시 미사후 봉사분과: 수요일 저녁미사후
4. 유아세례: 오늘 2시 미사후
5. 성탄 열세 특별교리: 14일~22일 매일 저녁미사후
※ 주보 <방저거 사베리오> 축일 미사 봉헌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창 김 계 부 제 수 안 신 류 배 유 인 태 정 읍	사도회 월례회	4,250원	계 3 지구	주 현 창 인 동 동 황 등	사도회 월례회	51,700원
		축, 본당 주보 첩보	19,365원			성심회 임시총회	42,700원
		의상봉 균인 영세 축하 합니다	5,915원			축 신부님 환영 합니다	
		교무금 봉헌 하여 본당살림 도움시다	1,200원				
제 2 지구	대 야 문 동 명 동 중 동 합 열	사도회 상임 위원회	4,535원	계 4 지구	중 앙 노 송 동 동 덕 진 복 자 서 학 동 동 전 동	사도회 월례회	60,212원
		사도회, 성심회, 학생회	34,000원			휴가중이던 한 레가스피 신부님 오심	22,562원
		사도회 월례회	20,860원			사도회 확대 회의	14,575원
		사도회 요셉회	15,545원			사도회 전체회의	20,101원
사도회 상임 위원회	15,055원	애령회 총회	12,500원				
제 3 지구	고 산 금 여 여 산 삼 배	사도회 긴급 위원회	2,500원	계 5 지구	무 장 진 안 남 준 순 승 임	원 원	
		사도회 월례회	9,310원			에 비 자 교리	11,475원
		자 모 회 월례회	11,955원			성 모 회, 테 레 사 회	